

누가 경제적 개방성을 지지하는가? : 경제적 불안이 한국인의 개방경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 현 경*

•요 약•

한국인들은 세계화와 개방경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누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누가 이에 반대하는가. 국제정치경제(IPE) 문헌은 세계화와 무역정책을 둘러싼 개인의 태도가 물질적 자기이해, 특히 개인이 세계경제 구조 속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위험과 불안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이러한 이론적 주장을 개인 수준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economic insecurity)이 개인의 태도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개인이 종사하는 산업의 특성을 경제적 불안의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자유무역과 개방경제 전반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입제한 선호, 자유무역의 효과 인식, 다국적 기업에 대한 태도, 이민자에 대한 태도 등 네 가지 종속변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경쟁 노출이 높은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일수록 네 가지 태도 영역 전반에서 일관되게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세계화와 개방경제에 대한 태도가 산업적 위치를 통해 매개되는 경제적 불안의 분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세계화-경제적 불안-정치태도 간 미시적 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무역태도의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경제적 불안, 개방경제, 자유무역 태도, 세계화, 국제정치경제

I. 서론

최근 우리는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구조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BK21사회학교육연구팀 연구교수

적 도전에 직면하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의 공급망 교란, 주요국의 산업정책 강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이에 따른 무역·기술 분쟁의 장기화는 세계화의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재집권, 그리고 노골적인 보호주의 정책으로의 선회는 세계화에 대한 반발과 보호주의적 요구가 더 이상 주변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서구 민주주의의 정당정치를 흔드는 핵심 정치 이슈로 부상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¹⁾ 무역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가안보·산업전략·국내 분배갈등이 교차하는 핵심 정치 의제가 된 것이다. 이처럼 서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호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변동은 정치경제학이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온 주제인 세계화와 무역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균열에 관한 연구에 다시금 불을 붙이고 있다.²⁾

자유무역 선호의 결정요인을 둘러싼 국제정치경제(IPE) 문헌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무역이론에 기반한 물질적 자기이해(material self-interest) 접근으로, 개인이 속한 산업·직업·요소소득의 위치에 따라 무역개방의 기대이익과 조정비용이 상이하게 분포하며, 그 결과 무역정책 선호 역시 체계적으로 분화된다고 본다. 이 접근은 무역이 개인의 ‘내 지갑(pocketbook)’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무역정책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설명해 왔다. 둘째는 정체성, 이념, 문화적 위협 인식, 사회적 신뢰 등 비물질적 요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대안적 관점으로, 개인의 무역 태도가 반드시 물질적 이해관계로 환원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³⁾ 이러한 논쟁은 세계화와 무역에 대한 태도, 더 나아가 국제경제적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어디까지 개인의 경제적 이해에 의

1) Colantone, Italo and Piero Stanig. 2018. “The Trade Origins of Economic Nationalism: Import Competition and Voting Behavior in Western Europ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62, no.4, 936–953.; Flaherty, Thomas M. and Ronald Rogowski. 2021. “Rising Inequality as a Threat to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75, no.2, 495–523; Mansfield, Edward D., Helen V. Milner and Nita Rudra. 2021. “The Globalization Backlash: Exploring New Perspectiv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54, no.13, 2267–2300.

2) Owen, Erica and Stefanie Walter. 2017. “Open Economy Politics and Brexit: Insights, Puzzles, and Ways Forward”,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24, no.2, 179–202.; Walter, Stefanie. 2021. “The Backlash Against Globaliz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24, 421–442.; Jensen, J. Bradford, Dennis P. Quinn and Stephen Weymouth. 2017. “Winners and Losers in International Trade: The Effects on US Presidential Vo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71, no.3, 423–457.; Rodrik, Dani. 2021. “Why Does Globalization Fuel Populism? Economics, Culture, and the Rise of Right-Wing Populism”, *Annual Review of Economics*, Vol.13, 133–170.; Scheiring, Gábor et al. 2024. “The Populist Backlash Against Globalization: A Meta-Analysis of the Causal Evide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4, no.3, 892–916.

3) Kuo, Jason and Megumi Naoi. 2015. “Individual Attitudes”, *The Oxford Handbook of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Trade*, edited by Lisa Martin, 99–11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해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국제정치경제학의 핵심 쟁점을 구성한다.

무역이 정당정치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의 비용이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집중될 때 정치적 반발이 증폭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상당 부분은 주로 서구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물질적 자기이해가 자유무역 태도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형성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다. 한국은 높은 대외의존도와 제조업 중심의 성장경로를 갖는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제한적인 사회안전망이라는 제도적 특성이 결합된 사례로서, 동일한 무역충격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체감하는 위험과 정책 선호가 서구의 전형적 사례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기존 이론의 외적 타당성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방경제의 국내정치를 설명하는 이론을 제도적 조건 속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경험적 계기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 사회에서 상품과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를 매개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서 경제적 불안(economic insecurity)에 주목한다. 세계화, 즉 상품과 자본, 노동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은 고용과 이에 따른 소득의 변동성을 심화시키며 이는 경제적 불안을 촉발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불안의 정도는 개인이 종사하는 산업이 국제경쟁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본 연구는 산업 수준에서 국제경쟁 노출이 개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불안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이러한 불안이 다시 세계화와 경제적 개방성에 대한 태도로 연결되는지를 미시적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이 종사하는 산업의 특성을 경제적 불안의 구조적 지표로 활용하고, 국제경쟁에 더 크게 노출된 산업에 종사할수록 보호주의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물질적 자기이해 가설을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03년과 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응답자가 종사하는 산업을 수입경쟁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이러한 산업별 노출의 차이가 경제적 개방성에 대한 태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자유무역 태도를 단일 문항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제한, 다국적 기업, 이민자 등 개방경제와 연동된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태도가 어떻게 연결되거나 분절되는지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무역정책의 균열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표성 있는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자유무역 및 대외개방 태도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제시함으로써, 주로

서구 사례에 기반해 축적되어 온 세계화와 무역 태도 연구를 한국 맥락으로 확장한다. 둘째,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도 무역정책을 둘러싼 승자-패자의 균열이 산업별 수입 경쟁 노출을 통해 개인의 정책 인식과 태도를 구조화한다는 점을 실증함으로써, 무역충격과 정책 태도 간의 연결고리를 미시적으로 복원한다. 셋째, 무역정책이 산업정책과 경제안보 논의와 결합되는 최근의 변화 속에서, 향후 한국 통상정책의 사회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자유무역 선호에 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III장은 한국 사례에서 물질적 자기이해 가설이 갖는 이론적 함의를 논의한다. IV장에서는 자료와 변수, 그리고 경제적 불안을 포착하기 위한 변수로서 수입경쟁 노출의 측정 및 분석전략을 제시한다. 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VI장에서는 분석 결과의 함의와 한계를 논의하며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II.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통상정치 연구에서 개인의 정책선호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역정책이 단순한 국가전략의 산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선호에 의해 제약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개인들이 자유무역과 경제적 개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가에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정치경제 문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명은 물질적 자기이해에 기반한 접근이다. 이 관점은 무역개방이 개인과 집단에게 상이한 분배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위치가 정책선호를 결정한다고 본다. 다만 물질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상이한 이론적 전통이 발전해왔다.

첫째는 헉셔-올린-사무엘슨(Heckscher-Ohlin-Samuelson) 모형에 기반한 요소부존도 접근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각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활용하는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며, 그 결과 풍부한 요소를 보유한 개인은 자유무역의 수혜자가 되고, 희소한 요소를 보유한 개인은 피해자가 된다.⁴⁾ 이에 따라 개인의 교육수준이나 숙련 정도가 무역 태도의 핵심 결정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가설이 도출된다. 실제로 다수의 경험적 연구는 서구 선진국에서 고학력자가 자유무역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해왔다.

4) Rogowski, Ronald. 1987. "Political Cleavages and Changing Exposure to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1, no.4, 1121-1137.

둘째는 리카르도-바이너(Ricardo-Viner) 또는 특정요소(specific factors) 모형으로, 개인의 선호는 생산요소의 보유보다는 종사 산업이 국제경쟁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에 의해 더 직접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이 접근은 특히 단기적으로 생산요소의 산업 간 이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산업별 이해관계가 무역정책 선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히스코스(Hiscox)는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여, 요소 이동성(factor mobility)의 정도에 따라 무역을 둘러싼 정치적 균열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즉 요소 이동성이 낮은 경우에는 산업별 이해관계가 선호 형성을 주도하지만, 요소 이동성이 높아질수록 계급 또는 숙련 수준과 같은 요소 기반 균열이 부각된다는 것이다.⁵⁾ 이 관점에서 보면, 수입경쟁에 직면한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자유무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은, 특정한 노동시장 조건 하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부합하게, 최근의 실증연구들은 산업별 수입경쟁 노출이 개인의 무역 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선호 형성 연구는 물질적 이해관계만으로 개인의 무역 태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확장되었다. 맨스필드와 머츠(Mansfield and Mutz)는 교육수준이 단순히 인적자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집단에 대한 개방성, 세계시민주의적 가치, 문화적 관용성과 같은 비물질적 태도를 반영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⁶⁾ 이후 문화적 위협 인식, 민족주의, 정체성 정치, 사회적 신뢰, 이념적 정향 등이 무역 태도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축적되었다.⁷⁾

이러한 연구들은 통상정치 연구의 지평을 확장시켰지만, 동시에 물질적 이해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선호를 설명하는가라는 경험적 질문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다. 특히 기존 연구가 미국과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경제적 조건을 지닌 국가에서 이 이론들이 동일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외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중요한 분석 사례를 제공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매

5) Hiscox, Michael J. 2001. "Class Versus Industry: The Impact of Specialized Factors on Social Attitudes toward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5, no.1, 1-17.

6) Mansfield, Edward D. and Diana C. Mutz. 2009. "Support for Free Trade: Self-Interest, Sociotropic Politics, and Out-Group Anxie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63, no.3, 425-457.

7) Margalit, Yotam. 2012. "Lost in Globalization: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Sources of Popular Disconten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56, no.3, 484-500.; Schaffer, Lena Maria and Gabriele Spilker. 2019. "Self-Interest Versus Sociotropic Considerations: An Information-Based Perspective To Understanding Individuals' Trade Preference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26, no.6, 1266-1292.

우 높은 무역의존도를 가진 개방경제이면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구조의 비대칭성,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안전망이라는 특징을 동시에 지닌다. 이러한 조건은 무역개방의 효과가 사회집단 간에 균등하게 분포되기보다는, 특정 산업과 노동자 집단에 집중적으로 부담을 가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도 무역정책을 둘러싼 태도가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구조적으로 분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역정책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국제적 연구 흐름과 달리, 한국을 대상으로 개인 수준에서 자유무역 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김미경의 연구는 한국인의 자유무역 태도를 분석한 드문 연구로, 한국 사례를 경험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갖는다.⁸⁾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교육, 소득, 실업 여부와 같은 일반적 사회경제적 변수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무역개방으로 인한 분배적 충격을 보다 직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변수, 즉 응답자가 종사하는 산업변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이나 소득과 같은 변수는 개인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가치관·이념·세계시민주의적 성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해석상의 모호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경험적 결과만으로 물질적 자기이해 가설이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한국 사례에서 물질적 이해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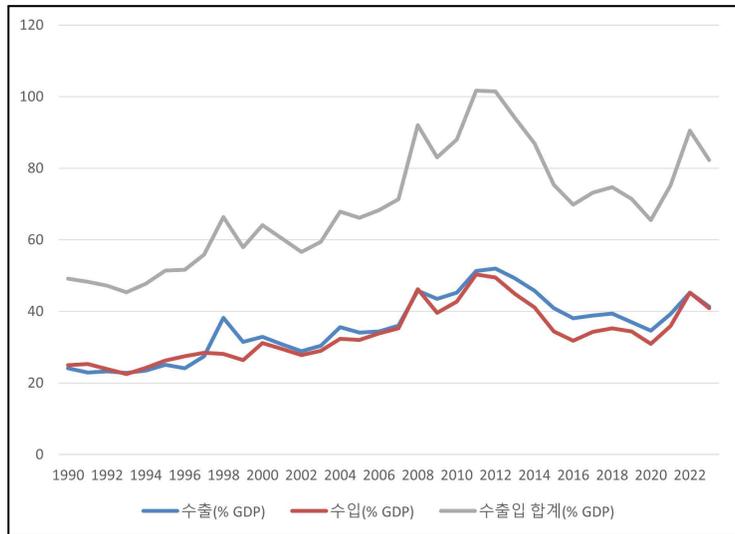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존 한국 연구들이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국제경쟁에의 노출이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자유무역 태도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기존 연구를 반복하거나 한국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개방의 분배적 효과가 개인의 정책선호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보다 정교한 경험적 검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론적·방법론적 기여를 갖는다. 가령 수입경쟁이 치열한 산업에 종사한다면, 그렇지 않은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수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해 응답자의 종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계모델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해왔다.⁹⁾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아래 장에서는, 수입경쟁이 심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수입경쟁이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보호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자세히 논의한다.

8) 김미경. 2011. "대의경제정책과 한국사회의 갈등: 선호, 정책패러다임, 그리고 국내정치연합의 형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5권 제5호, 147-173.

9) Hainmueller, Jens et al. "Do Concerns about Labor Market Competition Shape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97, no.1. 193-207.

Ⅲ. 한국 맥락에서의 이론적 기대와 연구가설

본 연구가 한국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경제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도를 보이는 대표적인 개방경제이기 때문이다. GDP 대비 수출입 합계 비율로 측정되는 무역의존도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2012년에는 100%를 상회하였고, 이후에도 대체로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을 상당히 웃도는 수준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산업구조, 고용구조가 대외경제 환경에 구조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1〉 참조).



(데이터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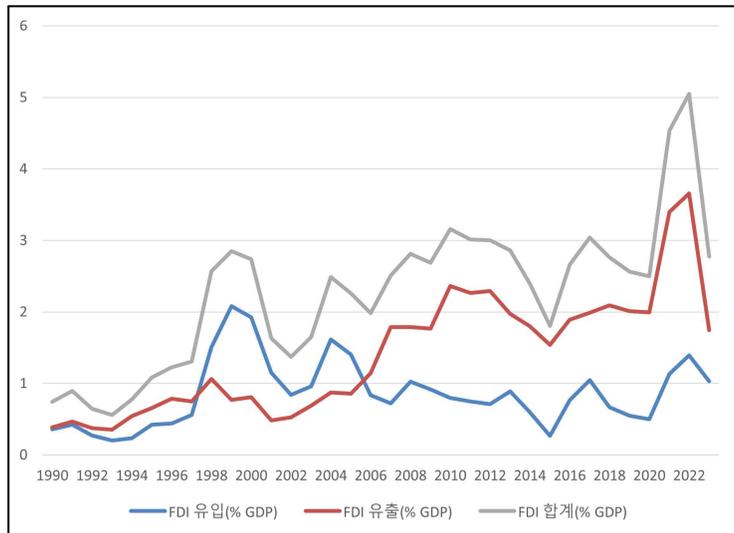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무역의존도

이러한 높은 개방도는 한국 사회 전반에 자유무역에 대한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온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제 비교조사에서 한국인의 자유무역 지지도는 다수의 서구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수출주도형 성장경로를 통해 형성된 집단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¹⁰⁾ 그러나 높은 무역의존도는 동시에 무역개방이 사회 내부에 균등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함축한다. 즉 무역이 한

10) 강유덕. 2023. “보호무역주의의 원인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실증연구: Eurobarometer의 거시 데이터를 통한 분석”, 『유럽연구』, 제41권 제3호, 29-58.

국경제 전반에 중요할수록, 그로 인한 이익과 비용 역시 집단 간에 차별적으로 분포될 가능성이 크다.

개방경제의 구조적 중요성은 해외직접투자(FDI)의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한국의 FDI 유출입 규모는 199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해외직접투자 유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깊이 편입되었으며, 다수의 기업이 다국적 기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의 국제화는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고용구조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데이터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그림 2> 한국의 FDI

쉬비와 슬러터(Scheve and Slaughter)가 지적하듯이, FDI에 많이 노출된 산업일수록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높아지고, 고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¹¹⁾ 한국에서도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과 기업의 해외 이전, 생산기지 재배치 등의 과정은 특정 산업과 노동자 집단에 집중적으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확실성을 야기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무역개방과 생산의 세계화가 단순한 거시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경

11) Scheve, Kenneth and Matthew J. Slaughter. 2004. "Economic Insecurity and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8, no.4, 662-674.

험과 위험 인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변화임을 시사한다. 해외 및 국내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활발하고 가시적인 활동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은 한국인들이 세계화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기업의 다국적화 또는 생산의 국제화는 노동시장의 경계가 일국을 넘어 해외의 값싼 노동력과 가격경쟁(race to the bottom)을 하게 만드는 노동시장의 국제적 통합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아닌 ‘고품질’로 경쟁하여 오히려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는 고숙련 노동자와 해외의 값싼 인력으로 대체가능한 저숙련 노동자 사이에 FDI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다 중요하게는 생산의 세계화에 노출된 정도의 상이성에 기인한 교역부문과 비교역부문 간 인식의 격차가 세계화의 한 측면인 다국적 기업과 이들의 투자활동에 대한 인식에도 반영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공공부문 등 비교역부문은 다국적 기업의 진입과 후퇴, 오프쇼어링이나 리쇼어링이 초래하는 고용이나 임금의 변동성이라는 노동시장 불안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이들은 교역부문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다국적 기업에 대해 덜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쟁력이 약한 교역부문의 종사자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수입의 감소나 일자리 기회의 박탈 또는 그러한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있는 교역부문보다도 다국적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도 세계화와 개방경제는 단일한 국가적 이익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집단 간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정치경제적 쟁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개방경제의 국내정치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경험적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개방경제의 심화는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행태와 집합적 정치 결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위험의 증가는 개인의 정책 선호뿐 아니라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핀토(Pinto)는 FDI가 정당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하였으며,¹²⁾ 롬멜과 월터(Rommel and Walter)는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 사이의 정당 지지 패턴을 분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¹³⁾ 이러한 연구들은 세계화와 개방경제가 단순히 경제적 인식 차원을 넘어, 정치적 균열 구

12) Pinto, Pablo M. 2013. *Partisan Investment in the Global Economy: Why the Left Lov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FDI Loves the Lef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 Rommel, Tobias and Stefanie Walter. 2018.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Offshoring: How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Shapes Party Preferences in Multi-Party System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51, no.5, 621-658.

조와 정치적 결과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이해관계의 차이를 포착하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으로 개인의 경제적 불안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개인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산업이 얼마나 무역에 노출되어 있고 국제 경쟁에 취약한가를 나타내는 ‘산업의 수입경쟁 노출’ 변수의 효과를 살펴본다. 기존 연구는 개인이 경험하는 무역의 분배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교육, 소득, 직업 안정성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왔지만, 이러한 변수들은 무역개방과의 인과적 연결성이 간접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산업별 수입 경쟁 노출은 무역개방이 개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이다. 수입경쟁이 심한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산업 종사자에 비해 고용 불안정, 임금 압박, 산업 쇠퇴의 위험을 더 크게 경험하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험과 인식은 자유무역 자체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 글로벌 자본, 이민자와 같은 개방경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제조업 내 산업별 경쟁력 격차가 크고, 일부 산업은 장기간에 걸쳐 중국 등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 압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은 산업별 수입경쟁 노출이 개인의 세계화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균열선(cleavage)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높인다.

다시 말하면,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경제적 동기는 수입경쟁에 노출된 부문과 비교역부문 혹은 수입경쟁이 낮은 부문 간 이해관계의 불일치에 있다. 보다 극심한 수입경쟁에 노출된 부문은 수입의 감소와 일자리 기회의 박탈을 경험하거나 그럴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형성하게 되어 세계화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가설이다. 특히 수입경쟁으로부터 취약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가 하는 여부는 개인의 경험과 손익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밑바탕이 되어 자유무역에 대한 선호의 영역을 넘어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이민자에 대한 인식 등 생산의 세계화의 다른 측면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수입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일수록 수입제한에 대해 더 강한 지지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수입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일수록 자유무역의 긍정적 효과(소비자 혜택)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가설 3. 수입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일수록 다국적 기업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4. 수입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일수록 이민자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업별 수입경쟁 노출이 단일 정책 이슈에 국한된 효과가 아니라, 세계화와 개방경제 전반에 대한 개인의 인식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IV.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산업별 수입경쟁 노출이 개인의 세계화 및 개방경제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성인 인구를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반복 횡단면 조사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정치적 태도, 가치관을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수집해 온 자료이다. 특히 2003년과 2013년 조사는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 모듈을 포함하고 있어, 자유무역, 수입제한, 다국적 기업, 이민자 등 세계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태도를 동일한 문항 구성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두 연도 자료는 세계화와 관련된 개인의 태도를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은 현재 취업 중이거나 노동시장 참여 의사가 있는 응답자로 한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가 개인이 종사하는 산업의 수입경쟁 노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과의 실질적 연관성이 없는 응답자를 포함할 경우 이론적 타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세계화와 개방경제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다차원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네 가지 종속변수를 사용한다. 모든 문항은 1~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있으며,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값이 클수록 보호주의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의미하도록 재코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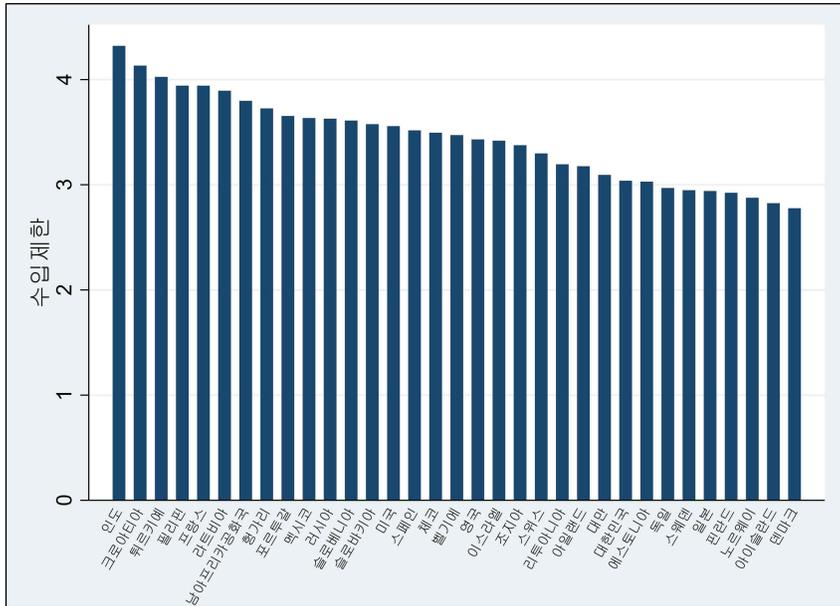
첫째, 수입제한에 대한 선호는 “국가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상품의 수입을 제한해

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정도를 측정된 문항이다. 원래 응답은 1=매우 찬성, 5=매우 반대였으나, 분석에서는 이를 역코딩하여 값이 클수록 수입제한에 대한 지지가 강함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둘째, 자유무역에 관한 인식은 “자유무역은 더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문항이다. 이 변수는 원래부터 값이 클수록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미하도록 코딩되어 있어 별도의 재코딩 없이 사용하였다. 셋째, 다국적기업에 대한 인식은 “대규모 외국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점점 더 해를 끼치고 있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문항이다. 이 변수 역시 역코딩하여 값이 클수록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함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넷째,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이민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된 문항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우려가 한국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역시 역코딩하여 값이 클수록 이민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네 가지 문항은 각각 무역정책, 자유무역의 인식, 생산의 세계화(다국적기업), 노동력 이동(이민자)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을 포착하며, 수입경쟁 노출의 효과가 개방경제 전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데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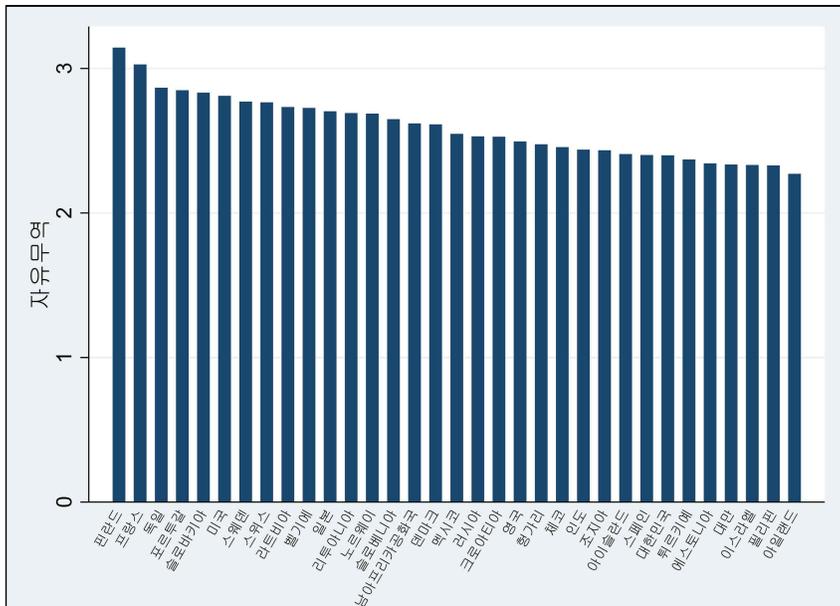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네 가지 종속변수가 국제 비교 맥락에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ISSP 2013년 자료를 기준으로 각 문항의 국가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림 3>부터 <그림 6>까지는 수입제한, 자유무역, 다국적 기업, 이민자에 대한 인식 문항에 대한 국가별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각 그림에서 값이 높을수록 보호주의적이거나 개방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해당 그림들이 보여주듯이, 한국은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평균 태도(낮은 평균값)를 보이는 국가에 속한다. 이는 한국이 장기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어 온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평균값은 사회 내부의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동일한 국가 안에서도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위치와 경험에 따라 세계화와 개방경제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 관심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즉,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개방 친화적인 평균적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는 종사 산업의 수입경쟁 노출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 다국적 기업, 이민 등에 대한 태도가 체계적으로 분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후의 실증분석은 이러한 개인 수준의 분화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누가 경제적 개방성을 지지하는가?: 경제적 불안이 한국인의 개방경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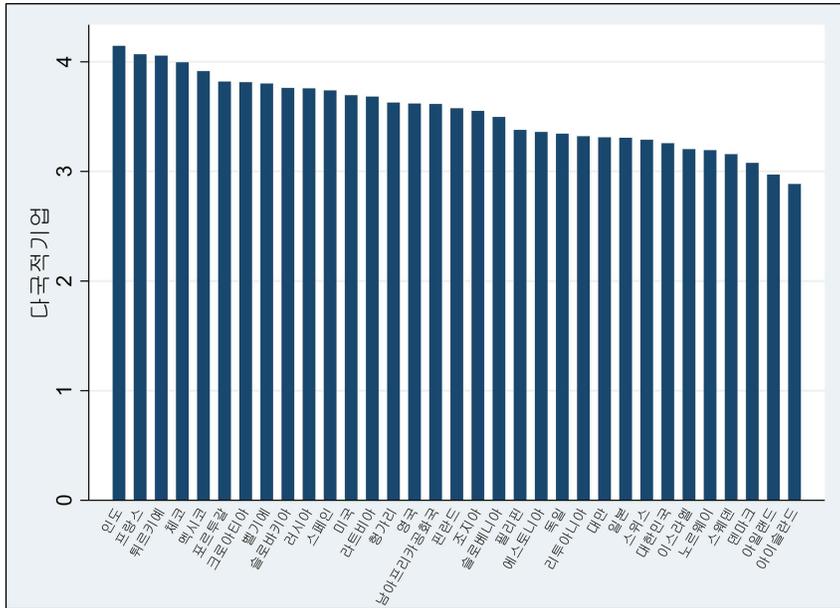
주: 값이 높을수록 수입제한에 대한 지지가 강함.

〈그림 3〉 수입제한 선호의 국가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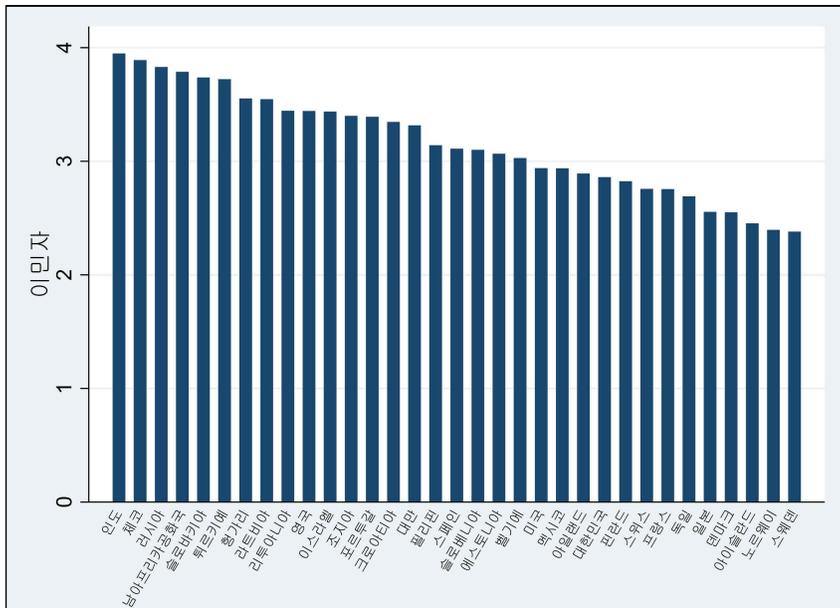
주: 값이 높을수록 자유무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그림 4〉 자유무역 인식의 국가별 평균



주: 값이 높을수록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함.

〈그림 5〉 다국적 기업 인식의 국가별 평균



주: 값이 높을수록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함.

〈그림 6〉 이민자 인식의 국가별 평균

2. 설명변수: 산업의 수입경쟁 노출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는 응답자가 종사하는 산업의 수입경쟁 노출 수준이다. 기존 연구들이 교육이나 소득과 같은 간접적인 대리변수를 활용해 개인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측정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무역개방의 분배적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산업별 수입경쟁 수준을 활용한다. 수입경쟁이 심한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수입 개방의 확대에 대해 피해를 경험하며 따라서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보호주의적인 선호가 강할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다.

산업별 수입경쟁 수준의 분류는 임혜준 외¹⁴⁾의 산업별 수입침투율 분석을 기초로 하였다. 해당 연구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3단위 수준에서 산업별 수입침투율 변화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을 수입경쟁 수준이 높은(high), 중간(mid), 낮은(low)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이 분류를 확장하여 제조업 외 산업까지 포함하도록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연구에서 'high competing'으로 분류된 제조업¹⁵⁾과 비교우위가 낮아 수입경쟁에 취약한 1차 산업을 가장 높은 수입경쟁 노출 집단(값=4)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 제조업은 중간 수준(값=3), 서비스업은 비교적 낮은 수준(값=2), 그리고 수입 경쟁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공공부문(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등)은 가장 낮은 수준(값=1)으로 코딩하였다. 이 변수는 값이 클수록 수입경쟁 노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순서형 변수이다. 이와 같은 조작화는 산업별 수입경쟁 노출이 개인이 체감하는 노동시장 위험과 경제적 불안정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개방의 분배적 효과를 포착하는데 이론적으로 적합한 지표라고 판단된다.

3. 통제변수와 분석방법

수입경쟁 노출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개인 수준의 사회경제적·이념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교육수준(0~8 범주), 가구소득(22개 구간 범주), 연령, 성별(남성=1)을 포함하였다. 기존 몇몇 연구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보호주의 태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¹⁶⁾ 교육수준은 인적자본을 대리하는 변수로서 물질적 자기이해를 반영할 가

14) 임혜준·이홍식·박성재. 2011. “한국 수입경쟁(Import-competing)산업 이직 근로자의 특징 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2호, 109-137.

15) 음료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수입경쟁의 정도가 가장 높은 산업에 포함된다.

16) Baker, Andy. 2005. “Who Wants to Globalize? Consumer Tastes and Labor Markets in a Theory

능성과 동시에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반영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제되어야 할 변수로 간주된다. 노동시장 지위와 관련하여,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노동자 및 구직 의사가 있는 실업자를 노동시장 외부자로 분류하여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는 고용 불안정성이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념적 요인으로는 주관적 정치성향(1=매우 보수, 5=매우 진보), 노동조합 가입 여부, 국가 정체성 변수를 포함하였다. 국가 정체성 변수는 “나는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기보다도 한국인이고 싶다”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국가 정체성이 강함을 의미하도록 재코딩하였다.

종속변수들이 모두 1~5의 서열형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기본 분석모형으로 사용하였다. 순서형 프로빗 모형은 응답 범주 간의 순서를 보존하면서도, 각 응답 범주 간의 잠재적 연속성을 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자료 구조에 적합하다.

V.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응답자 산업의 수입경쟁 노출이 네 가지 종속변수인 수입제한 선호, 자유무역에 대한 인식, 다국적 기업에 대한 태도,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모든 종속변수는 값이 클수록 보호주의적이거나 개방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강함을 의미하도록 코딩되어 있다.

1. 수입제한에 대한 선호

〈표 1〉은 종사 산업의 수입경쟁 노출이 수입제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핵심 설명변수인 수입경쟁 노출은 세 개의 모형 모두에서 일관되게 양(+)의 계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수입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에 종사할수록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강하게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of Trade Policy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9, no.4, 924–938.; Brutger, Ryan and Alexandra Guisinger. 2022. “Labor Market Volatility, Gender, and Trade Preferences”, *Journal of Experimental Political Science*, Vol.9, no.2, 189–202.; Mayda, Anna Maria and Dani Rodrik. 2005. “Why are Some People (and Countries) More Protectionist than Other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49, no.6, 1393–1430.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도 무역경쟁이 개인에게 균등하게 체감되지 않으며, 경쟁으로 인한 비용이 집중되는 집단에서 보다 보호주의적 태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수입제한 선호

수입제한	(1)	(2)	(3)
수입경쟁	0.093** (0.039)	0.094** (0.040)	0.093** (0.040)
교육수준	-0.100*** (0.025)	-0.101*** (0.025)	-0.101*** (0.026)
소득	-0.020*** (0.006)	-0.020*** (0.006)	-0.019*** (0.006)
남성	-0.275*** (0.058)	-0.276*** (0.058)	-0.289*** (0.060)
연령	0.006** (0.003)	0.005** (0.003)	0.004 (0.003)
노조가입		-0.127 (0.078)	-0.154** (0.078)
노동시장 외부자		-0.071 (0.066)	-0.060 (0.068)
정치성향			0.019 (0.028)
국가 정체성			0.067** (0.031)
Cutpoint1	-1.867*** (0.199)	-1.926*** (0.205)	-1.678*** (0.251)
Cutpoint2	-0.832*** (0.193)	-0.891*** (0.199)	-0.628** (0.246)
Cutpoint3	-0.120 (0.192)	-0.177 (0.198)	0.069 (0.245)
Cutpoint4	1.010*** (0.195)	0.955*** (0.200)	1.217*** (0.248)
사례수	1,429	1,429	1,379

***p<0.01, **p<0.05, *p<0.1

통제변수의 패턴 역시 기존 해외 연구와 대체로 일관된다. 교육수준과 소득은 보호주의의 성향과 음(-)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인적자본과 경제적 자원이 높은 개인일수록 무

역으로부터 얻는 편익을 더 크게 인식하거나, 최소한 무역으로 인한 위험을 덜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과 부합한다. 남성 응답자가 여성보다 덜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점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온 패턴이다. 연령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만 유의한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국가 정체성 변수가 양(+)의 계수를 보인다는 점은, 무역 태도가 순수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정체성 요인과의 결합되어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제한이라는 비교적 직접적인 무역 정책 문항에서 수입경쟁 노출의 효과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을 강하게 지지한다.

2. 자유무역에 대한 인식

〈표 2〉는 자유무역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과 수입경쟁 노출 간의 관계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수입경쟁 노출은 이 문항에서도 일관되게 양(+)의 계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수입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 종사자일수록 자유무역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더 회의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먼저 살펴본 수입제한 선호와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 수입제한 문항이 정책적 선택(규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것이라면, 본 문항은 자유무역 자체에 대한 평가를 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경쟁 노출이 동일한 방향의 효과를 보인다는 점은, 개인이 경험하는 산업적 맥락이 단순히 정책 선호뿐 아니라 자유무역의 효과에 대한 인식 자체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 문항에서는 교육과 소득의 효과가 수입제한 문항과 비교할 때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자유무역에 대한 일반적 평가가 단순히 인적자본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이 속한 산업적 위치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자유무역이 추상적으로는 이익이라고 인식되더라도, 자신의 산업이 실제로 수입경쟁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 자유무역 인식

자유무역	(1)	(2)	(3)
수입경쟁	0.093** (0.040)	0.093** (0.041)	0.087** (0.041)
교육수준	0.006 (0.026)	0.005 (0.026)	-0.007 (0.027)

누가 경제적 개방성을 지지하는가?: 경제적 불안이 한국인의 개방경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현경)

자유무역	(1)	(2)	(3)
소득	-0.007 (0.006)	-0.007 (0.007)	-0.007 (0.007)
남성	-0.271*** (0.059)	-0.272*** (0.060)	-0.264*** (0.061)
연령	-0.002 (0.003)	-0.002 (0.003)	0.000 (0.003)
노조가입		0.002 (0.080)	0.014 (0.081)
노동시장 외부자		-0.006 (0.068)	-0.024 (0.069)
정치성향			-0.017 (0.029)
국가 정체성			-0.194*** (0.032)
Cutpoint1	-1.221*** (0.199)	-1.225*** (0.205)	-2.054*** (0.257)
Cutpoint2	0.257 (0.196)	0.252 (0.202)	-0.542*** (0.252)
Cutpoint3	1.150*** (0.199)	1.145*** (0.205)	0.357 (0.253)
Cutpoint4	2.166*** (0.216)	2.161*** (0.221)	1.363*** (0.266)
사례수	1,422	1,422	1,374

***p<0.01, **p<0.05, *p<0.1

3.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인식

〈표 3〉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태도와 수입경쟁 노출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수입경쟁 노출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인다. 이는 수입경쟁에 노출된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한국 경제에 대한 기회라기보다 위협 또는 위험 요인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이론적 확장을 제공한다. 다국적 기업 문항은 무역 정책과 직접적으로 동일한 차원의 이슈라기보다는, 생산의 세계화와 기업 활동의 국제화를 반영하는 보다 넓은 차원의 개방경제 이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경쟁 노출이 이 문항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는 점은, 개인이 경험하는 경제적 위치가

단일 정책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화 전반에 대한 인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수입경쟁 노출은 단순히 무역정책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변수가 아니라, 다국적 기업, 글로벌 자본, 생산의 국제화 전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 3〉 다국적 기업 인식

다국적 기업	모형(1)	모형(2)	모형(3)
수입경쟁	0.103*** (0.040)	0.103** (0.040)	0.108*** (0.041)
교육수준	-0.017 (0.026)	-0.018 (0.026)	-0.014 (0.026)
소득	-0.008 (0.006)	-0.009 (0.006)	-0.008 (0.006)
남성	-0.183*** (0.058)	-0.186*** (0.059)	-0.186*** (0.060)
연령	0.003 (0.003)	0.003 (0.003)	0.001 (0.003)
노조가입		-0.035 (0.078)	-0.024 (0.079)
노동시장 외부자		-0.043 (0.067)	-0.037 (0.068)
정치성향			0.018 (0.029)
국가 정체성			0.064** (0.031)
Cutpoint1	-1.743*** (0.203)	-1.776*** (0.209)	-1.486*** (0.255)
Cutpoint2	-0.643*** (0.195)	-0.676*** (0.201)	-0.387 (0.248)
Cutpoint3	0.180 (0.194)	0.147 (0.200)	0.433* (0.248)
Cutpoint4	1.442*** (0.198)	1.410*** (0.204)	1.691*** (0.252)
사례수	1,408	1,408	1,362

***p<0.01, **p<0.05, *p<0.1

4. 이민자에 대한 인식

〈표 4〉는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수입경쟁 노출 간의 관계를 제시한다. 이민자 문항은 무역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슈는 아니지만, 분석 결과 수입경쟁 노출은 이 문항에서도 일관되게 양(+)의 계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수입경쟁에 노출된 산업 종사자일수록 이민자를 노동시장 경쟁자로 인식하고,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이다. 이는 수입경쟁 노출이 단지 무역이라는 특정 정책 영역에 대한 태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경쟁과 관련된 보다 일반화된 불안과 위협 인식으로 확장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국제무역을 통한 경쟁으로 인한 구조적 위험에 노출된 개인들은 이민자 역시 자신의 고용 기회와 임금 전망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개방경제 전반에 대해 보다 방어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화가 개인의 인식 차원을 넘어, 사회 내부의 균열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로 이해될 수 있다.

〈표 4〉 이민자 인식

이민자	모형(1)	모형(2)	모형(3)
수입경쟁	0.096** (0.040)	0.103** (0.040)	0.108*** (0.041)
교육수준	-0.108*** (0.025)	-0.106*** (0.025)	-0.101*** (0.026)
소득	-0.002 (0.006)	-0.000 (0.006)	-0.001 (0.007)
남성	-0.097* (0.058)	-0.084 (0.059)	-0.069 (0.060)
연령	0.007*** (0.003)	0.007*** (0.003)	0.005** (0.003)
노조가입		-0.056 (0.079)	-0.050 (0.079)
노동시장 외부자		0.087 (0.067)	0.099 (0.068)
정치성향			0.036 (0.028)
국가 정체성			0.062** (0.031)

이민자	모형 (1)	모형 (2)	모형 (3)
Cutpoint1	-1.466*** (0.198)	-1.408*** (0.203)	-1.077*** (0.251)
Cutpoint2	-0.142 (0.194)	-0.083 (0.199)	0.266 (0.248)
Cutpoint3	0.703*** (0.194)	0.763*** (0.200)	1.108*** (0.249)
Cutpoint4	1.806*** (0.201)	1.868*** (0.207)	2.223*** (0.257)
사례수	1,427	1,427	1,375

***p<0.01, **p<0.05, *p<0.1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개인이 속한 산업이 수입경쟁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는 네 가지 종속변수 전반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세계화와 개방경제에 대한 태도가 무작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산업적·경제적 위치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입경쟁 노출의 효과가 무역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태도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같은 보다 넓은 영역에서도 관찰된다는 점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는 세계화와 개방경제가 단순히 경제적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내부의 인식 구조와 정치적 균열을 형성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VI. 결론

본 연구는 세계화와 개방경제에 대한 태도가 단순한 이념적 선택이나 정보 수준의 차이 또는 문화적 정체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위치, 특히 세계경제 구조 속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불안에 의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이 종사하는 산업의 수입경쟁 노출 수준을 경제적 불안의 대리 지표로 설정하고, 이 변수가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에 대한 다양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사 산업의 수입경쟁 노출 수준은 수입제한 선호, 자유무역의 효과 인식, 다국적 기업에 대한 태도, 이민자에 대한 태도 등 네 가지 종속변수 전반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일수록 자유무역과 개방경제 전반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무역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슈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이민자에 대한 인식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화와 개방경제가 개인에게 균등하게 체감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무역으로 인해 경쟁도가 높은 산업에 속한 개인들은 고용불안, 소득불안정, 노동시장 경쟁 심화와 같은 구조적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제적 불안의 경험이 정치적 태도의 형성에 중요한 경로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불신,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단순한 인식 차이나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세계경제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위험의 사회적 분포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통해 세계경제에 깊이 편입되어 온 국가이며, 평균적으로는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높은 사회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러한 평균적 태도 이면에서, 개인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위치와 불안 수준에 따라 개방경제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세계화의 사회적 기반이 균질하지 않으며, 향후 통상정책이나 대외경제정책, 더 나아가 이민자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사회 내부의 불평등 구조와 결합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물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산업 수준의 수입경쟁 노출 변수를 활용하여 경제적 위험을 객관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이 실제로 인식하는 주관적 불안이나 고용위험을 직접 측정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적 구조 요인과 주관적 인식 요인을 결합한 분석을 통해, 세계화가 정치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별 수입경쟁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변수이므로, 보다 다양한 시점을 포괄하는 자료를 활용한 후속 분석은 본 연구의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는 최근 시점을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시기의 통상정책 환경이나 단기적 여론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기보다, 무역경쟁에 노출된 산업적 위치가 개인의 태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라는 미시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가 활용한 자료는 여전히 중요한 경험적 가치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수행 시점에 활용할 수 없었던 가장 최근의 국가정체성 모듈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경제적 불안의 작동 메커니즘이 변화하는 세계화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되는지를 검증하고, 시기별·정책

맥락별 비교를 통해 분석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세계화로 인한 구조적 경제적 불안이 개인의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경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세계경제 속에서 위협과 불안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되고 있는가라는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분석할 필요성을 확인해준다.

참고문헌

- 강유덕. 2023. “보호무역주의의 원인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실증연구: Eurobarometer의 거시 데이터를 통한 분석”, 『유럽연구』, 제41권 제3호.
- 김미경. 2011. “대의경제정책과 한국사회의 갈등: 선호, 정책패러다임, 그리고 국내정치연합의 형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5권 제5호.
- 임혜준·이홍식·박성재. 2011. “한국 수입경쟁(Import-competing) 산업 이직 근로자의 특징 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2호.
- Baker, Andy. 2005. “Who Wants to Globalize? Consumer Tastes and Labor Markets in a Theory of Trade Policy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9, no.4.
- Brutger, Ryan and Alexandra Guisinger. 2022. “Labor Market Volatility, Gender, and Trade Preferences”, *Journal of Experimental Political Science*, Vol.9, no.2.
- Colantone, Italo and Piero Stanig. 2018. “The Trade Origins of Economic Nationalism: Import Competition and Voting Behavior in Western Europ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62, no.4.
- Flaherty, Thomas M. and Ronald Rogowski. 2021. “Rising Inequality as a Threat to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75, no.2.
- Hainmueller, Jens, Michael J. Hiscox and Yotam Margalit. 2015. “Do Concerns about Labor Market Competition Shape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97, no.1.
- Hiscox, Michael J. 2001. “Class Versus Industry: The Impact of Specialized Factors on Social Attitudes toward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5, no.1.
- Jensen, J. Bradford, Dennis P. Quinn and Stephen Weymouth. 2017. “Winners and Losers in International Trade: The Effects on US Presidential Vo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71, no.3.
- Kuo, Jason and Megumi Naoi. 2015. “Individual Attitudes”, in *The Oxford Handbook of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Trade*, edited by Lisa Martin, 99–11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nsfield, Edward D. and Diana C. Mutz. 2009. “Support for Free Trade: Self-Interest, Sociotropic

- Politics, and Out-Group Anxie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63, no.3.
- Mansfield, Edward D., Helen V. Milner and Nita Rudra. 2021. “The Globalization Backlash: Exploring New Perspectiv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54, no.13.
- Margalit, Yotam. 2012. “Lost in Globalization: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Sources of Popular Disconten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56, no.3.
- Mayda, Anna Maria and Dani Rodrik. 2005. “Why are Some People (and Countries) More Protectionist than Other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49, no.6.
- Owen, Erica and Stefanie Walter. 2017. “Open Economy Politics and Brexit: Insights, Puzzles, and Ways Forward”,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24, no.2.
- Pinto, Pablo M. 2013. *Partisan Investment in the Global Economy: Why the Left Lov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FDI Loves the Lef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drik, Dani. 2021. “Why Does Globalization Fuel Populism? Economics, Culture, and the Rise of Right-Wing Populism”, *Annual Review of Economics*, Vol.13.
- Rogowski, Ronald. 1987. “Political Cleavages and Changing Exposure to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1, no.4.
- Rommel, Tobias and Stefanie Walter. 2018.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Offshoring: How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Shapes Party Preferences in Multi-Party System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51, no.5.
- Schaffer, Lena Maria and Gabriele Spilker. 2019. “Self-interest Versus Sociotropic Considerations: An Information-based Perspective to Understanding Individuals’ Trade Preference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26, no.6.
- Scheiring, Gábor, Manuel Serrano-Alarcón, Alexandru Moise, Courtney McNamara and David Stuckler. 2024. “The Populist Backlash Against Globalization: A Meta-Analysis of the Causal Evide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4, no.3.
- Scheve, Kenneth and Matthew J. Slaughter. 2004. “Economic Insecurity and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8, no.4.
- Walter, Stefanie. 2021. “The Backlash Against Globaliz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24.

【 Abstract 】

Who Supports Economic Openness?
Economic Insecurity, Import Competition,
and Attitudes toward Economic Openness in South Korea

Kim, Hyunkyoung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economic insecurity structures attitudes toward trade and economic openness in South Korea. It conceptualizes economic insecurity as the key mechanism and uses individuals' industry-level exposure to import competition as a proxy. Using data from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the study analyzes four dimensions of attitudes: support for import restrictions, perceptions of free trade, attitudes toward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The results show that individuals employed in sectors more exposed to import competition consistently exhibit more negative attitudes across all dimen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ttitudes toward economic openness are systematically shaped by economic positions and globalization-induced risks. By providing individual-level evidence from South Korea,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trade politics and economic insecurity.

Key Words : economic insecurity, competition, trade attitudes, globalization, IPE